



강태영 NH농협은행장, 추석 비상대응체계 점검

NH농협은행은 강태영 은행장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난 30일 경기 의왕 통합IT센터와 용산구 고객행복센터를 찾아 비상대응체계 및 안전시스템을 긴급 점검했다고 1일 밝혔다. 강태영 은행장은 통합IT센터 UPS(무정전 전원장치)실을 점검하며, 화재 안전성이 높은 연축전지 설비 등을 직접 확인했다.

/NH농협은행



벤츠 사회공헌위원회,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가 경찰청과 함께 교통 안전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어린이 맞춤형 안전벨트 가드 2000개를 제작해 배포한다. 마티아스 바이틀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 의장이 교통안전 지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

/벤츠코리아



애경산업, 보훈가정 '무궁화 선물함' 전달

애경산업은 국군의 날을 기념하며 서울 마포에 위치한 국제구호개발 비영리단체 굿피플 사옥에서 '무궁화 선물함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선물함은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정에 배분될 예정이다. 애경산업 박진우 상무(왼쪽)와 굿피플 이용기 회장(오른쪽)이 기념 활동을 하고 있다.

/애경산업



홈앤쇼핑, '3기 소비자보호위원회' 발족

홈앤쇼핑이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3기 소비자보호위원회'를 발족했다. 1일 홈앤쇼핑에 따르면 소비자보호위원회는 소비자 정책 전문가 1명, 소비자 대표 5명, 내부위원 등으로 구성했다. (왼쪽부터)홈앤쇼핑 소비자보호위원장 권창범 변호사, 홈앤쇼핑 이성한 경영지원본부장이 기념 활동을 하고 있다.

/홈앤쇼핑

한솔제지 에코바디스 플래티넘 등급

한솔제지는 에코바디스(Ecovadis)의 글로벌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 조사에서 상위 1%에게 부여되는 플래티넘 메달 등급(Platinum Medal Rating)을 3년 연속 획득했다.

한솔제자는 올해 평가에서 환경, 노동과 인권, 지속가능한 구매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3년 연속 플래티넘 등급을 받았다.

한솔제지 관계자는 "친환경 제품 개발과 책임 있는 경영 활동을 강화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현대차그룹, '현대차 정몽구배 양궁대회' 공식 후원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등 후원 참여
역대 최대 규모 230명 선수 참가

현대자동차그룹이 한국 양궁의 지속 발전과 양궁 대중화를 위해 국내 최고 권위의 양궁대회 후원을 이어간다.

현대차그룹은 1일 대한양궁협회 주최로 오는 3일까지 광주광역시에서 열리는 '현대자동차 정몽구배 한국양궁대회 2025'를 공식 후원한다고 밝혔다.

현대차 정몽구배 한국양궁대회는 세계 최강의 실력을 자랑하는 한국 양궁 선수들이 모여 실력을 겨루는



'현대자동차 정몽구배 한국양궁대회 2025' 트로피

대회로, 2016년 창설 이래 국내 양궁 선수들의 경기력 강화와 한국 양궁 저변 확대에 기여해 왔다.

4회 째를 맞은 올해 대회는 국가 대표 및 상비군, 대한양궁협회 주관 대회 고득점자 등 역대 최대 규모인

230명의 선수들이 참가한다. 특히 내년 9월 개막하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2028 로스엔젤레스(LA)올림픽' 등을 앞두고 선수들의 경기력을 점검하는 의미도 갖는다.

타이틀 후원사는 현대차이며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제철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 참여했다. 총상금은 국내 양궁대회 중 최고 수준인 5억9600만 원이다. 우승자에게는 1억원(리커브 기준)이 포상되며, 상금의 25%를 입상 선수 지도자에게 경기력 향상 연구비로 지급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중기부, 내수 활성화 팔 걷어… 소상공인·전통시장 협장 지원

한성숙 장관, 영천시장 차담회
소진공, 온기나눔 꾸러미 전달
기정원, '전통시장 가는 날' 캠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공공기관들이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 활성화, 봉사활동 등을 통해 소상공인, 전통시장 추가 지원에 적극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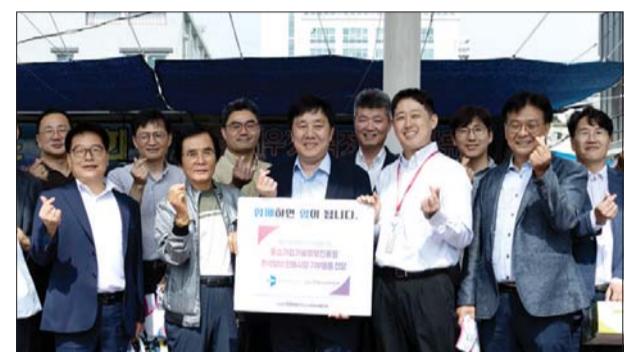
1일 중기부에 따르면 한성숙 장관은 이날 서울 서대문에 있는 독립문 영천시장을 방문해 추석 성수품 수급 동향 및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상인들과 차담회를 가졌다.

이날 차담회에서 상인들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페이백,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 정부의 소비진작 프로그램에 대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한장관은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국거리, 떡, 과일 등의 성수품을 구매할 수 있고,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면서 "정부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페이백 등 다양한 소비진작 대책이 추석과 함께 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달 말 대전 유성구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추석맞이 온기나눔 꾸러미를 전달했다. 임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지난달 30일 세종시 세종전통시장에서 '지역 전통시장 가는 날'을 진행했다. (앞줄 왼쪽 6번째) 김영신 기정원장이 임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정원

행되고 있는 만큼 민생경기 회복과 연계될 수 있도록 더욱 전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도 추석맞이에 분주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날 대전 태평 전통시장에서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소진공 봉사단은 멀티탭을 교체하고 자동 소화 패치를 부착하는 등 화재 발생 예방 활동을 진행했다.

또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화재 안전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콘센트 마

개, 멀티탭, 자동 소화 패치를 상인회를 통해 배포했다.

이와 별도로 소진공은 지난달 말엔 대전 유성구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송편, 유파 등 추석 음식 6종으로 구성된 꾸러미 100개를 전달하기도 했다.

박성효 이사장은 "이번 활동은 추석을 맞아 지역사회 모두가 따뜻한 한가위를 보내길 바라는 마음에서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전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도 지난 달 30일 세종시 조치원 세종전통시장에서 '지역 전통시장 가는 날' 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에서 김영신 원장을 비롯한 본부장·실장 등 간부진과 직원들은 이불, 잠옷 세트, 견과류 등 생활필수품과 식품을 구입하고 물품을 세종시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지역 소외계층에 전달했다.

김 원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 활동을 지속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인사

◆ **한국재료연구원** △부원장 이창훈 △극한재료연구소장 나영상 △경량재료 연구본부장 김수현 △나노재료연구본부장 양상선 △모빌리티금속연구센터장 김영민
◆ **경남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 (개방형직위) 이필우

부 음

▲ 김서식씨 별세, 김학관(전 충북경찰 청장)씨 부친상=1일, 청주성모병원 장례식장 특1호, 발인 3일. 043-210-5444

▲ 이운학씨 별세, 이영혜·영희·영현씨 부친상, 이성훈(한국거래소 시장감시 본부 사전예방부 부서장)씨, 김정기씨, 장태희씨 장인상 = 3일, 이대서울병원 장례식장 특6호실, 발인 3일 오전 6시 30분.

▲ 김재월님 별세, 박화진(아들), 박정희(딸) 모친상, 구성민 빙모상, 신정인 시모상 = 1일 오전 9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1호, 발인 3일 오전 10시 40분.

오뚜기, 협력사 하도급대금 145억 조기 지급

어음 기준 평균 60여일 앞당겨

오뚜기(대표이사 회장 함영준·사진)가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돋기 위해 추석을 앞두고 145억원의 협력사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조기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OEM사, 원료업체, 포장업체 등 78곳이며, 전월 하도급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정상 지

급일보다 어음 기준 평균 60여 일 앞당겨 지급된다.

오뚜기는 협력사 외의 상생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ESG 추진팀을 중심으로 관련 부서 임직원으로 구성된 내부 심의위원회를 통해 동반성장과 관련된 주요한 사안을 논의하여 개선하고 있다. 또한,

2015년부터 동반성장펀드를 마련하여 협력사와 대리점들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아 경영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오뚜기 관계자는 "내수 부진과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중소 협력사들의 자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이 자금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LG U+, '아이드림챌린지' 4000명 참여

LG유플러스는 군인 자녀 대상의 교육격차 해소 프로그램 '아이드림챌린지' 누적 참여 인원이 4000명을 돌파했다고 1일 밝혔다. 아이드림챌린지는 교육 환경에서

소외되기 쉬운 아동에게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해 교육권을 보장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참여 아동은 LG유플러스의 '아이들나라' 등 디지털 교육 콘텐츠를

통해 연령별 독서 활동을 지원받고, 온라인 멘토링을 통해 학습 습관 형성을 돋는다.

LG유플러스는 이달 말부터는 군인 자녀를 넘어 소방관 자녀 400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seoh@